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이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경 숙*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and old-aged for the policy implications

Gyeong Sook-Lee *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중·노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ng modeling)을 작성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인과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한 다음, G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중·노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노년의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는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키워드 :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사회활동참여, 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study was to test hypothesis that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affect on life satisfaction,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I established research model based on reference review and took a questionnaire on the life satisfaction to the middle-aged and old-aged people over the age of fifty, who live in G city among the attendants at the program that was held by the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affected on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analytical results.

▶ Keyword : social support, family function, social activity, life satisfaction

• 제1저자 : 이경숙

• 투고일 : 2011-02-23, 심사일 : 2011-03-24, 게재확정일 : 2011-04-05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I. 서론

최근 의료·과학 기술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성공적 노화개념이 부쩍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예정이다. 2010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79.4세로, 남성은 75.9세, 여성은 82.5세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보면 중·노년층의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베이비붐세대(1955~1963)의 퇴직연령 진입으로 퇴직 후 사회진출로 이어진 중·노년층의 사회활동의 증가는 중·노년의 삶을 재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가족과 사회적 지지를 수반한 복지욕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현실이 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기존 기대 역할의 변화나 전반적인 가족, 사회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노년의 성공적이고 만족스런 삶을 위한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가 노년학의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노년기의 삶의 중심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정으로 급격히 옮겨진다는 점에서 가족기능이 더욱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영양, 의학상의 발전, 여가활동에의 관심 증가 등으로 노년기에도 충분히 활기찬 사회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 참여활동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영향 요인의 탐색이나 그 영향요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주부나 이주 여성 또는 재가노인과 같은 특정한 부류의 삶의 한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점차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가족과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가족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회 참여활동이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중·노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작성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인과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한 다음, G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중·노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해 본다. 연구모형의 가설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기 위해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SPSS 18.0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화의 개념

노화(aging)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이다 [1]. 노화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과정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신체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생물학적 노화(biological aging)와 축적된 경험에 의해 행동, 감각, 지각기능, 자아인식 등이 변화하는 심리적 노화(psychological aging), 생활주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변화하는 사회적 노화가 그 세 가지 측면이다[2]. 노년기 또는 노인은 이러한 노화의 측면에 맞춰 정의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년기와 노년기에 대한 일지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사회학이나 생물학, 심리학 등 각 학문별로 학문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각기 다양한 정의를 내리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중년기 이후의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중년기 이후를 한 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3]. Birren[4]은 노인을 첫째, 생리적·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즉 노년기란 생리적·생물학적으로 퇴화기이면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는 시기이다. 여기에 몇 가지 관점을 더 추가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노년기는 자기 인생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전체 인구 집단에서 보면 가장 나이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연령집단이나 세대로 볼 수 있다. 노년기를 연령 측면에서 보면 현재 사회구조상으로는 퇴직을 기준으로 60-65세를 노년기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40대 중반에서 70대까지를 노년기로 보고 있는 사회도 많이 있다. 노년기에 비해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연령상 40-60세의 성인을 말한다. 노화의 입장에서 볼 때 중년기의 40-60세 사이는 노화

가 상당히 진행된 60세 이후와는 달리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로써 노년기와 구분할 수 있다. 중년기는 여러 측면에서 안정, 성숙한 시기로 배우자 및 자녀관계의 재조정, 통합된 자아추구, 한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세대로서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수행 등의 발달과업을 가진다[5]. 그리고 심리적, 생리적인 측면에서 중년기는 신체능력의 쇠약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기와 연관하여 중년기는 노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인간의 성년기라고도 할 수 있으며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2.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2.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은 Neugarten 등[6]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삶의 질,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Kalish[7]는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는 정도와 주위환경에 잘 적응해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구분해 정의하였다.

이효재[8]는 삶의 만족도를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 정의한다. 첫째, 일상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이고, 둘째로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다. 셋째는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는 상태이고, 넷째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제공하는 상태, 마지막으로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다. 최성재[9]는 과거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의 정도로 보았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크게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으로 구분된다. 상향이론은 행복이 즐거운 순간과 경험, 그리고 괴로운 순간과 경험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며, 하향이론이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성격요인에 따라 행복감이 좌우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10]. 최근에는 두 이론을 통합하는 연구로 삶의 조건에 대한 해석에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성격요인 모두가 간접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11].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나 삶의 질과 동일시하기 쉬우나, 이 개념들과는 다르다. 삶의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나 삶의 질보다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 만족도, 삶의 질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삶의 만족도는 자기 기대치의 충족 여부를 통해 자신의 존재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의 측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써 그 평가를 구성하는 영역들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과 조작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달라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는 다양하며 앞으로 계속 논의될 주제이다.

이러한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라던가, 사회적 지지나 사회활동의 개념을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차영란 등[12]은 40, 50대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상의 생활기록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역할(가정주부, 직장여성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박인숙 등[13]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우울과 관련시켜 분석하였고, 우명주[14]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임현숙[15]은 재가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은영[16]은 여성 노인 집단을 중심으로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전광의[17]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족기능과 관련해서 권운정[18]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렇게 삶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들의 조사대상은 주로 중년 여성과 노인, 재가노인, 정신장애인과 같이 특정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부 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한두 가지의 영향 요인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들을 상호 연관 속에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추세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첫째,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심리적 및 물리적인 형태의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존경 및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 정보 및 지식 형태의 인지적 지지, 그리고 경제적 혹은 물질적 지지 등이 포함된다. 일반

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 및 적응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순오[19]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 체계 속에서 활동하는 개인에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정서적,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속성으로서,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보았으며, 정순돌[20]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친척, 동료 또는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이자 이들 체계들이 제공하는 도움이라고 정의했다. 박지원[21]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Vaux[22]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망의 자원과 지지적 행동, 지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House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했고, Kahn&Antonucci는 사회적 지지를 넓은 의미에서 공식적 지지와 비공식적 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지지는 애정, 확신, 보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인간관계의 교류로 보았다 [15].

이상을 정리해 보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 속의 개인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도움에서 나타나는 관계와 행동, 자원, 평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도움은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방식을 통해 실행되며, 그 구조적 방식에 따라 도움방식은 나뉘지만, 결국 사회관계 속에서 위태로울 수 있는 개인의 정서나 정신상태를 보호하고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은 중·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기 위한 척도는 사회적 지지 대상에 대한 도움의 측면을 구별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가족기능을 들 수 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장 일차적이면서 자연적인 사회체계로 알려져 있다.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활동이 절정에 달해있는 중년기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정서적 토대로서,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서의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상태와 구성원에 있어 여러 가지 연관 여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바탕이 되는 가족의 상태란 주로 가족기능의 상태 여부와 관련된다. 따라서 가족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가족기능을 연구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송성재[23]는 가족기능을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파악한다. 이러한 가족기능

은 가족구성원의 욕구 충족이나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나 가족과 다른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반영된 것을 의미하며 가족 전체의 안녕을 도모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족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즉 충족 유지라는 관점을 가진 생물학적인 측면과 심리적 욕구 충족이라는 관점을 가진 심리적 측면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족구성원에게의 영향력은 심리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나 다른 가족들은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인 상태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하고 격려해줄 때 긍정적인 가족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24].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의사소통,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등이 있다. 의사소통이란 가족 상호 간의 의사 전달 방식을 말하며, 가족응집성은 가족체계의 정서적 차원을 가리킨다. Olson, Porter & Lavee[25]는 가족응집성을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5가지 하위 영역, 즉 '정서적 결속감', '도움과 의논', '가족의 경계 유지', '여가시간 및 친구의 공유', '활동의 공유와 행사 참여'로 나누어 가족 응집성을 설명한다. 가족적응성은 조직적인 권력차원을 나타낸다. Olson은 가족적응성을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는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로 정의했고, 균형의 유지에 따라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나 분명한 역할 및 규칙이 확립될 수 있음이 정해진다고 보았다.

셋째, 사회참여 활동과 만족을 들 수 있다. 중·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사회활동의 감소는 기존의 삶이 사회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그로 인해 삶의 의욕이 상실되며,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립, 노화되어 삶의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늘어가고 여가생활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활동참여는 중·노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길 수 있다. 최현섭[26]은 사회참여를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써 깨어있는 시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질적인 발전을 목표로 사회적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진 과정과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회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투여하고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당연한 시민적 의무로 여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하나의 활동으로써 여러 영역에 걸쳐 실행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개인과 공동체에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허은희[27]가 노인의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번안한 Mangen DJ와 Peterson WA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의 인과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사회적 지지와 가족 기능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사회참여활동과 사회참여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표 1. 모형의 구성변수
Table 1. components of the model

구성요소	내용	관련 연구	
독립 변수	사회적 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가족 기능	의사소통, 가족응집성	darke(1984) FACESIII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최성재(1986): 생활만족도척도
매개 변수	사회 참여	사회참여활동, 사회참여태도, 사회참여만족도	Mangen DJ & Peterson WA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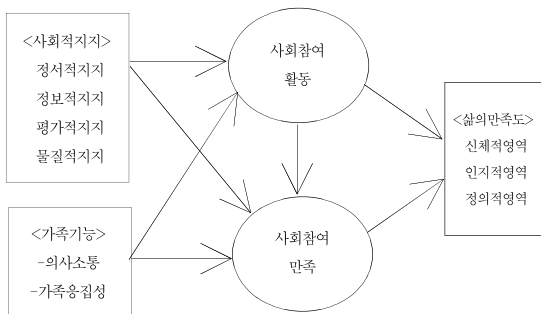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The research model

2. 가설 설정

표 2 연구가설
Table 2. research hypothesis

구분	내용
가설 1	사회적 지지는 사회참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사회참여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족기능은 사회참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가족기능은 사회활동참여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가족기능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사회참여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참여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사회참여만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 및 측정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중·노년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위해 성별, 연령, 월 소득, 건강상태, 학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사회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3.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박지원 [20] 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총5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척도 즉,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성되어 사회적 지지를 체계화한 것으로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정서적 지지란 존경이나 애정, 신뢰, 관심, 경청 등의 행위를 통한 지지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한 지지를 의미하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적 지지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통한 지지를 의미하고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 돕는 행위를 통한 지지를 의미하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3 가족기능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에 대해서는 한국가족에 적용가능성이 입증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이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좋은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도 박미영 [28] 이 사용 검증한 FACESIII 모델을 사용하였다. FACESIII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그리고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조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응집성 6문항과 의사소통 6문항에 한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다.

3.4 사회참여활동

사회참여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Mangen DJ와 Peterson WA가 개발한 척도를 허은희 [2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활동의 빈도나 종류에 관한 9문항, 둘째, 사회참여에 관한 태도에 관한 5문항, 셋째,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3.5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념은 자기 기대치의 충족 여부를 통해 자신의 존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신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가능한데, 그 중 본문의 중·노년여성의 삶의 만족도 측정은 최성재가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영역 4문항, 지적 영역 4문항, 정서적 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강한편이 45.1%(215명), 보통이 34.6% (165명),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 10.3%(49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67.3%(321명), 중졸 22.2%(106명), 초졸 이하 6.1%(29명)이며, 종교는 무종교 33.1%(158명), 기독교 25.6%(122명), 불교 19.5%(93명), 천주교 15.7%(75명), 기타 6.1(29명)이며, 연령범주는 55이상 ~60세미만 32.9%(157명), 55세미만 29.6%(141명), 60이상 ~65미만이 20.5%(98명), 65이상 17.0%(81명)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검증

2.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표3>과 같이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적 지지, 의사소통,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가족응집력, 물질적 지지 등 6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18.0을 이용하였으며, 항목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신뢰도 측정 방법인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IV . 실증분석

1. 표본선정 및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는 G시에 거주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여자, 50세 이상 중·노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7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SPSS 18.0과 AMOS 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남자 207명(43.4%), 여자 270명(56.6%), 배우자유무는 함께 산다가 88.1%(420명), 사별6.9%(33명), 이혼2.5%(12명)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 2명이 51.2%(244명), 3명이 25.2%(120명), 4명이 12.2% (58명) 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은 부부끼리가 50.3% (240명), 미혼자녀가족은 24.9%(119명), 기혼아들 가족 12.4%(59명)로 나타났으며, 월소득은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이 28.7%

(137명),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이 21.6%(103명),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이 18.2%(87명), 건강상태는 건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Table 3.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omponent					
	1	2	3	4	5	6
평가4	.806	.150	.276	.207	.118	.082
평가1	.806	.150	.276	.207	.118	.082
평가2	.784	.183	.162	.316	.175	.123
평가5	.784	.183	.162	.316	.175	.123
평가3	.782	.137	.269	.204	.183	.186
평가6	.782	.137	.269	.204	.183	.186
소통3	.109	.843	.117	.139	.089	.047
소통1	.226	.784	.046	.199	.153	.020
소통2	.152	.737	.149	.190	.213	.107
소통5	.106	.724	.103	.014	.376	.045
소통4	.121	.666	.186	.011	.335	.070
정보4	.221	.114	.765	.240	.062	.114
정보3	.280	.198	.729	.198	.106	.044
정보2	.274	.194	.723	.169	.127	.115
정보5	.313	.086	.701	.285	.101	.108
정보1	.161	.073	.650	.296	.154	.280

	Component					
	1	2	3	4	5	6
정서2	.242	.112	.198	.793	.134	.029
정서1	.216	.097	.194	.720	.175	.121
정서3	.397	.135	.245	.684	.122	.121
정서5	.248	.118	.267	.679	.198	.147
정서4	.223	.155	.271	.677	.057	.144
응집4	.136	.115	.027	.090	.710	.070
응집1	.024	.048	.077	.077	.693	.153
응집6	.228	.155	.022	.151	.670	.028
응집2	.093	.368	.168	.085	.655	.075
응집3	.197	.359	.065	.200	.644	.016
응집5	.111	.368	.242	.078	.619	.007
물질2	.256	.107	.228	.201	.127	.895
물질1	.256	.107	.228	.201	.127	.895
Eigen value	4.825	3.628	3.469	3.465	3.350	1.962
분산비율(%)	16.638	12.510	11.963	11.949	11.553	6.765
누적비율(%)	16.638	29.148	41.111	53.059	64.612	71.378
신뢰도 Cronbach Alpha	.952	.878	.883	.883	.832	1.000

2.2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검증

종속변수와 매개변수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4>와 같이 신체적 영역, 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사회활동 참여 및 만족 등 5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18.0을 이용하였으며, 항목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신뢰도 측정 방법인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 요인분석결과
Table 4.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Component				
	1	2	3	4	5
만족4	.839	.138	.023	.037	.064
만족5	.837	.072	.033	.007	.050
만족7	.815	.195	.034	.090	.150
만족3	.809	.149	.094	.008	.034
만족2	.729	.129	.117	.195	.112
만족6	.715	.111	.011	.062	.196

	Component				
	1	2	3	4	5
만족1	.630	.241	.153	.265	.032
정의3	.165	.817	.087	.022	.179
정의4	.169	.793	.166	.025	.098
정의2	.243	.782	.176	.030	.261
정의5	.190	.757	.210	.045	.050
정의1	.186	.681	.281	.062	.262
인지2	.078	.272	.805	.156	.089
인지3	.255	.291	.748	.112	.062
인지4	.038	.229	.736	.143	.227
인지1	.017	.047	.642	.200	.417
활동3	.110	.121	.056	.819	.029
활동1	.072	.004	.074	.759	.106
활동4	.059	.003	.169	.631	.227
활동2	.083	.182	.176	.515	.216
신체3	.033	.187	.271	.059	.789
신체1	.135	.445	.084	.117	.675
신체2	.140	.328	.253	.164	.633
Eigen value	4.488	3.719	2.612	2.181	2.090
분산비율(%)	19.513	16.170	11.356	9.481	9.087
누적비율(%)	19.513	35.683	47.040	56.521	65.607
신뢰도 Cronbach Alpha	.896	.892	.824	.795	.671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은 사회참여활동과 사회만족도를 매개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책적, 이론적 측면에서 함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한 인과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를 <표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Chi-Square값 3722.428, df는 1240, P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로 기초적합지수(GFI) .767, 간명적합지수(AGFI) .741, PGFI .690, 표준적합지수(NFI) .759, 증대적합지수(IFI) .826, TLI .812, 비교적합지수(CFI) .825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RMR(원소간 평균차이)의 값은 0.49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RMSEA(근차오차평균제곱근차이)값은 .065로 .08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5. research of the model fit indices

구분	절대적합지수				중분적합지수	
	(p)	df	GFI	RMSEA	NFI	TLI
적합지수	3722.428 (.000)	1240	.767	.065	.759	.812
최적기준	p<.05	-	.90이상	.08이하	.9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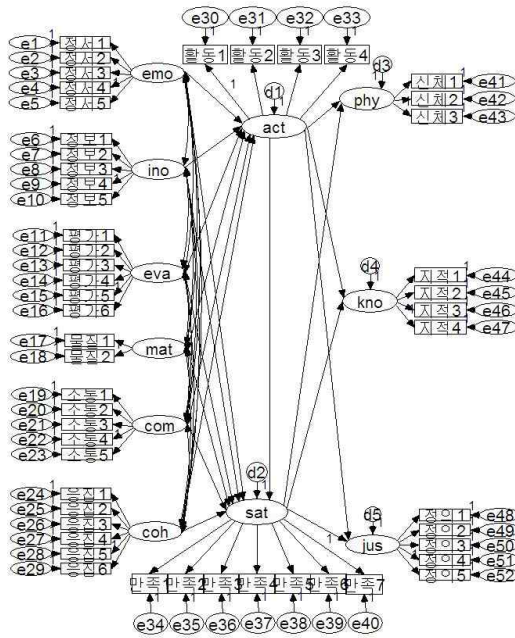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Fig. 2 analytical results of the study model

4. 가설 검증결과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이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표6>과 같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Table 6.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가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C.R (t)	p	채택 여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act←emo	.020	.055	.033	.618	.537	기각
act←ino	.069	.191	.034	.025	.043*	채택
act←eva	.022	.063	.033	.653	.514	기각
act←mat	.011	.039	.019	.571	.568	기각
act←com	.261	.721	.065	.038	***	채택

가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C.R (t)	p	채택 여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act←coh	.141	.308	.053	.678	.007*	채택
sat←coh	.720	.565	.127	.672	***	채택
sat←mat	.074	.096	.052	.441	.150	기각
sat←eva	.252	.262	.090	.806	.005*	채택
sat←ino	.080	.080	.086	.926	.355	기각
sat←com	.491	.487	.123	.993	***	채택
sat←emo	.107	.104	.090	.194	.233	기각
sat←act	.533	.191	.345	.546	.122	기각
phy←act	.819	.733	.414	.388	***	채택
kno←act	.230	.856	.518	.478	***	채택
jus←act	.330	.539	.310	.290	***	채택
jus←sat	.302	.342	.051	.894	***	채택
kno←sat	.066	.067	.067	.975	.329	기각
phy←sat	.123	.138	.059	.091	.036*	채택

(*:p<.05, **:p<.01, ***:p<.001)

V.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노년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과정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와 해석에 기초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적 지지와 의사소통, 가족응집성은 사회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노년층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응집성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평가적 지지와 의사소통, 가족응집성은 사회활동참여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노년의 사회활동참여 만족도는 사회적지지 중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높으며, 가족기능 즉, 가족 간 의사소통과 응집력이 높을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활동참여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서적·지적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활동참여 만족도는 신체적 만족도와 정서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

회활동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서적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중·노년층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추세에 따라 형성된 현재 중·노년층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중앙 정부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지지를 중·노년층에게 보다 확장시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노년층이 적극적으로 일이나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지지의 확장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활동참여를 유도한다면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문제의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구조의 변화, 수명연장에 따른 노년기의 연장, 가치관의 변화는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용어와 함께 핵가족화시대의 현실 문제로 놓여져 있으며, 급격히 변화된 중·노년의 삶을 감싸주고 보살펴주어야 할 가족과 사회에서 함께 지지를 보내야 할 문제이며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노인 건강보장과 고용 기회 확대, 소득지원 정책, 사회활동에 따른 노인 평생교육의 장 확대를 위한 정책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써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 ML. Beaver, "Human Service Practice with the Elderl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2] S.J. Choi, I.H. Jang, "Science of the elderly Welfare", University of Seoul Press, 2003.
 [3] R.C. Peck,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B. L., 1968.
 [4] J.E. Birren, "Principles of Research on Aging", In J. E. Birren (Ed.), Handbook of Aging and the Individua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3-42, 1959.
 [5] R.J.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Vol. 3rd ed. New York: David McKay, 1972.
 [6] D. Neugarten, & R. Havighurst, et al,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961.

[7] R.A. Kalish,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Cole Publishing Co. 1995.
 [8] H.J. Lee, "South Korea low-income seniors livingon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and the space proble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Culture, 1979.
 [9] S.J. Cho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Scale of he Concept of Life Satisfaction", Korea Institute of Cultural Publications, The Social Sciences 49, pp. 233-258, 1986.
 [10]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 542-575. 1984
 [11] A.P. Brief, A.H., George, J.M., & Link, K.E. "Inter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pp. 646-653, 1993
 [12] YR. Cha et., al. Middle-aged womeninthe daily life of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oles and life satisfaction analysis, Journal of Korea Psychology Women, Vol. 12, No. 3, 2007.
 [13] IS. Park, GO.Oh, JL. Kim, "Of the elderly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gazine, Article 16 No1, 1989.
 [14] M.J. WOO,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Network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Cheongju University, 2002.
 [15] HS. L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to the Elderly people living at hom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Kyung Hee University, 2008.
 [16] EY. Park,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productive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 focused on comparisons among elderly female group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ork, 2008.
 [17] GE. JUN, "A Study on the Effect of Seniors' Volunteer Activities on their Satisfaction of Life",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2010.

- [18] YJ. KWUN, "The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family function as perceived by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and their life-satisfaction", Yonsei University, 1995.
- [19] SO. Kim, "A Study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for Middle Aged Men", Journal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College, 18(2), pp177-186, 2000.
- [20] SD. Jung, "Characteristics of all Support Network for the Low Income Elderly People: Analysis of Dyadic Relationship,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4, 7-29, 2004.
- [21] JW. Park,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University of Yonsei, 1985.
- [22] A. Vaux,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raeger, New York, 1988.
- [23] SJ. Song, "Families and Family Therapy", Seoul: Beobmunsa, 2002.
- [24] GH. Kim, "A Study on the Impact of Family-Related Elements 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University of Daegoo Catholic, 2006.
- [25] D.H. Olson, J. Porter, & Y. Lavee, FAVES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Minnesota, St. Paul, Minnesota, 1985.
- [26] HS. Choi, "Soci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 training programs, research :Community-based civil society movement for the formation of young people around, EducationStudy 10, pp.65-85, 2000.
- [27] EH. Her "A Study of an Effect by the Social Participation of Christian Elderly People on the Quality of Life", HanYoung Theological Seminary, 2007.
- [28] MY. Park, "The Study on Usefulness of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 (FACES III) in family assesment of Behavior disorder", Ewha Womans University, 1992.

저 자 소개



이 경 속

2001 일본 아오모리현 근무

2010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1 현 광주 동구 근무

관심분야: 노인복지, 복지시설경영 등

Email : iris0715@korea.kr